

2019 세계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 2019 Italian Design Day

2019년 3월 15 - 20일 한국에서 진행되는 디자인 관련 문화 행사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은 이탈리아 디자인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이탈리아 외교 협력부의 프로젝트로 3 회를 맞는 올해의 주제는 “디자인과 미래도시” 이다. 2019년 서울을 방문하는 이탈리아 디자인 대사인 Davide Fassi 교수는 “디자인과 미래도시” 주제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Design for Commons”라는 제목으로 3월 19일 연세대학교와 3월 20일 오후 3시에 서울 시민청 태평홀에서 두 번의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밀라노 공과 대학교 (Politecnico)의 디자인 학과 교수이자 상하이 통지 대학교의 디자인, 혁신 학부의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회혁신 디자인을 주제로 한 디자인 대학들의 연합인 데시스 네트워크(DESIS Network)와 “Design for city making” 멤버이기도 하다. 또한 “Temporary Urban Solutions” (2012)과 “In the neighborhood” (2017)와 같은 다수의 책을 집필하고 감수하였으며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공동체에 중점을 둔 공간과 서비스 관계이다. 최근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로는 “Coltivando, the convivial garden at the Politecnico di Milano” (2011)와 “Human Cities”(2014-18)가 있으며, 2018년 “campUS – incubation and settings for social practices” 프로젝트로 제25회 이탈리아 산업디자인 상인 황금컴파스 (**Compasso d’Oro**)를 수상하였다. Davide Fassi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위 프로젝트를 통해 200명이 넘는 시민과 40개의 지역협회와 함께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사회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